

“청소년이 주인공”...복구, 청소년의 날 기념 문화축제 연다



지난해 열린 제1회 복구 청소년의 날 행사 단체 사진

/광주 복구청 제공

'미완성이라 더 빛나는 이름, 청소년' 주제로 열려 청소년 300여 명 참여 속 공연·체험행사 다채

광주광역시 복구(구청장 문인)가 청소년의 권리와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의 주제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한 축제를 연다.

11일 복구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일곡제2근린공원에서 '복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완성이라 더 빛나는 이름, 청소년'을 주제로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청소년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행사 ▲청소년의 날 선포 ▲청소년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청소년동아리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소년의 날 선포식'과 '청

소년헌장 낭독' 시간에는 청소년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청소년의 권리와 존엄, 지역사회의 미래 주역으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펼쳐질 계획이다.

복구는 축제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행사장 곳곳에 담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기획단의 주도로 행사 전반을 기획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복구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 용봉·각하·일곡 청소년문화의집, 복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복구 청소년 시설 6개소도 힘을 보태 행사에 청소년 친화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복구는 이번 행사가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복구청장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주역"이라며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구는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권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재섭 기자

서구, 공원으로 간 민주시민교육 운영

국군통합병원 일대 근대역사 현장 탐방 체험프로그램 통해 지역 역사 가치 재조명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원으로 간 민주시민'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 거점이었던 국군통합병원(현 5·18 국군병원) 일대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역사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공원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해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오는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오전·오후 과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오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이지훈 사무국장이 강사로 참여하는 스토리텔링형 도슨트 투어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국군통합병원을 시작으로 가톨릭평생교육원, 5·18역사공원, 505보안부대 옛터 등 지역의 주요 5·18 역사 현장을 둘러보며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생생하게 체험한다.

오후에는 화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오월이야기 퍼즐'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공간을 연결하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긴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을 직접 만들어보는 '5·18 전라도청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육에 관심 있는 주민은 세큰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행복교육과(062-360-7095)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5·18의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의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역사 교육을 넘어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현

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당시 시민들의 희생과 연대의 정신을 보다 생생하게 접하게 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갖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된다.

서구는 세대 간 역사 인식의 간극을 줄이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이번 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과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가영 기자

일시	장소	모집인원(명)	주요	내용	
2026. 6. 13(토)	10:00-12:00	화정근린공원	15	【도슨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탐방】 유엔기 부스 운영, 전 역사기행	국군통합병원 일대-가톨릭 평생교육원 -518 역사공원 -605 보안부대 옛터
	14:00-16:00	화정청소년 문화의집	8	ACC 민주·인권·평화 가치 나눔 시민참여 프로그램	오월 이야기 퍼즐
2026. 6. 20(토)	10:00-12:00	화정근린공원	15	【도슨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탐방】 유엔기 부스 운영, 전 역사기행	국군통합병원 일대-가톨릭 평생교육원 -518 역사공원 -605 보안부대 옛터
	14:00-16:00	화정청소년 문화의집	8	ACC 민주·인권·평화 가치 나눔 시민참여 프로그램	오월 이야기 퍼즐

모집기간 2026. 6. 4.(목) - 온라인 신청, 선착순 마감
- 오전/오후 신청 가능

신청대상 서구 주민 누구나(초·중·고생 이상 지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세큰대 홈페이지)

문의 서구청 평생교육정책팀 062)360-7095

광주광역시 서구

2026년 민주시민교육 공원으로 간 민주시민 포스터

/광주 서구청 제공

